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2019년 사업보고서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잠재된 능력을 믿어준다는 것

"너는 남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과 같아서야 어떻게 성공하겠니?"

성적이 엉망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은 그 아이는 훗날
일반상대성이론으로 획기적인 공헌을 하는 물리학자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적 욕망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자식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용기를 준 어머니가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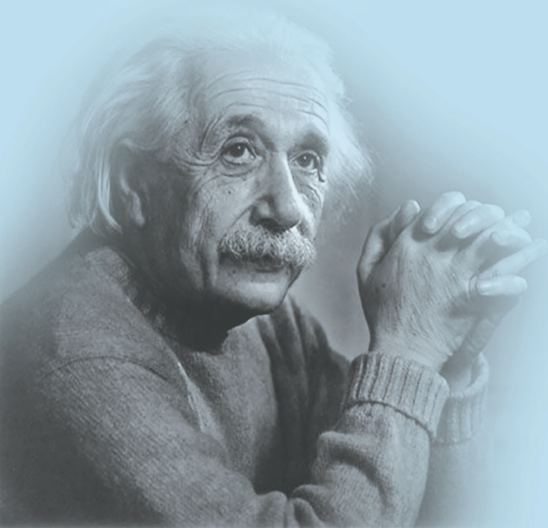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성적표에 덧붙인 초등학교 담임의 찝박한 의견을 읽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그 기록만을 믿고 아이를 다그치거나 용기를 꺾어버렸다면
가능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평한다는 것,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잠재된 능력을 믿어준다는 것, 그런 혜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훗날을 믿어주며 용기를 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 최 연 수 시인 -

Contents

- 02 | 여는 글과 목차
- 03 | 격려 글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상임이사
- 04 | 인사 글 / 1366전북센터장
- 05 |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운영현황
- 07 | 2019년 사업실적 현황
 - 07. 상담사업
 - 12. 교육·홍보사업
- 15 | 2019년 전라북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
- 18 | 2019년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사업
- 19 | 전문가 칼럼 / 천주교 전주교구 상담사목센터장
- 20 | 신입상담원 글
- 2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제도
- 23 | 2019년 후원금 수입 및 지출결과 보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주 기억하는 삶의 언어, 사랑의 온도를 체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의 사목헌장입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굶주린 이를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히며, 병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며, 감옥에 갇힌 이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폭력당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전화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울고 미소 지으며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지, 멀리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납치당한 사람, 고문당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걱정한다면, 하느님은 바로 그의 곁에 계시니다.”

현실적인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처우 속에서도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동료 직원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느님의 선물은 상호적인 것이어서, 이 선물을 누리려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인간을 대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언제나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활동가들에게는 전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성’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최근 “엄마의 향기, 엄마의 밥상”(차미자) 책을 선물 받았는데, 마음의 온도를 체크하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건 별이 있기 때문이요, 땅이 아름다운 건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요, 삶이 아름다운 건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이 아름다운 건 마음을 다해 만든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봉술 (아우구스티노) 신부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상임이사

인사 글



함 미 화
1366전북센터장

사람이 소중하다! 한걸음 한걸음 우리가 함께 가는 길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는 여성폭력 위기개입 기관으로서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과 초기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쉼 없이 전초기지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위기개입을 하고 난 후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폭력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기관들과 연계하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366전북센터의 역할로 인해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해마다 연말이 되면 본 센터에서는 협력해주셨던 모든 기관들의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람이 소중하다! 한걸음 한걸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은 지난해 파트너스 데이의 주제로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폭력피해여성들과 아동들이 '세상의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희망을 찾아가는 길에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들과 소통하며 연대하였던 한해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하는 연대의 힘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과 폭력예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열정을 다해주셨기에 고통 받는 피해여성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격려와 지원으로 힘을 북돋아 주신 천주교전주교구와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협력 해주신 모든 관련기관 상담소·보호시설의 관계자분들, 경찰관님들, 전라북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님들, 1366전북센터 운영위원님들과 후원자님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사님들, 그밖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서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현장방문상담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366전북센터가 폭력피해여성들에게 희망을 찾아가는 여성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로 사랑의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는 경자년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운영현황

■ 설립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

■ 운영목표

-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를 위한 초기지원체계 구축
- 여성폭력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을 통해 관련시설, 기관연계 등 네트워크 중심기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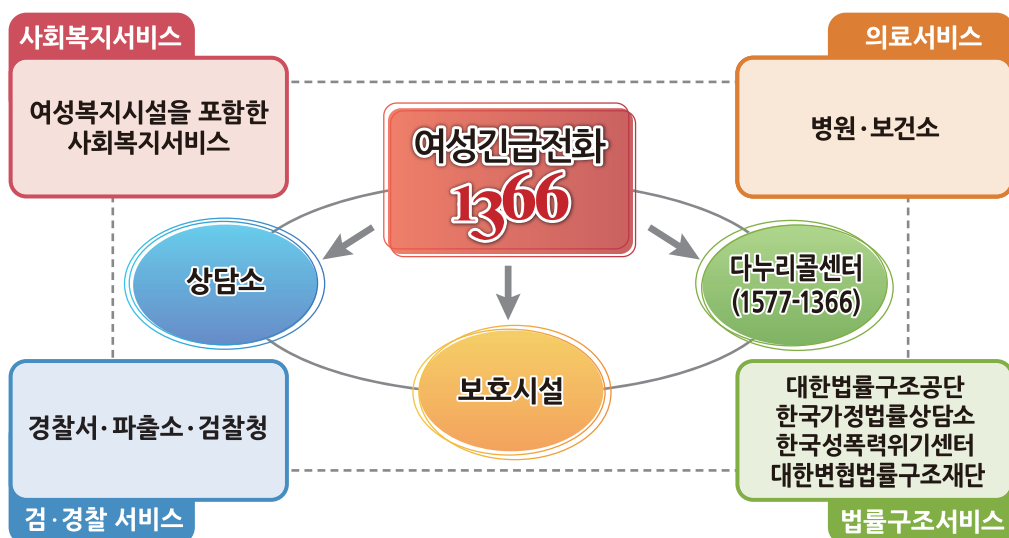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

■ 주요 임무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기관·시설과의 연계	긴급보호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현장방문상담, 위기개입 서비스, 여성종합정보안내	112, 119,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긴급 피난처 운영 긴급피난 현장서비스 실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 네트워크운영체계



비전체계도



연혁

1997. 12	위기여성상담 특수번호지정(보건복지부)
1998. 01	위기여성상담 특수전화『1366』운영개시,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수탁 운영
2000. 12	ONE-STOP 네트워크 구축
2001. 07	여성부이관, 전문상담원 9명 3교대 근무체계구축, 『1366 전북센터』 유관기관 협업체 구성
2001. 08	『1366 전북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2005. 01	『1366 전북센터』 긴급피난처운영 실시
2005. 04	『여성폭력방지 전라북도협의회』 실무 간사기관 위촉
2006. 05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008. 04	『아동·여성보호 전라북도연대』 실무 간사 기관 위촉
2009. 05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 실시
2011. 07	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신축이전
2015, 2017	지역안전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2017년 지역안전프로그램 우수상 수상
2018	(여성가족부장관상)
2018.08.03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로 법인 변경
2018	2018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여성가족부장관)
2015~2019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전라북도 거점기관 선정

조직도



운영위원회 구성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김 정 민	천주교전주교구 상담사목센터장	위 원	성 병 주	대자인병원 경영혁신본부장
위 원	강 삼 신	온고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위 원	신 미 애	전라북도 여성권익팀장
위 원	김 미 진	전북도민일보 차장	위 원	허 명 숙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
위 원	박 주 원	지역주민	위 원	함 미 화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위 원	박 휴 성	전북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			

2019년 사업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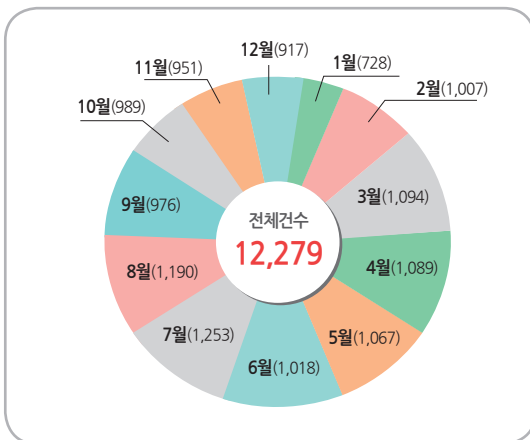
I. 상담사업

1. 상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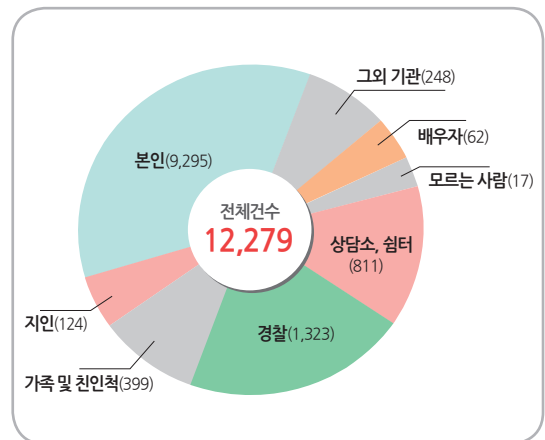
2019년도 전체상담 건수는 12,279건으로 전년도 13,000건보다 721건(5.5%) 감소하였으나 주요 여성폭력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건수는 총 8,630건으로 전년도 8,573건보다 57건(0.7%) 증가하였다. 그중 가정폭력상담은 전체상담 건 중 62.3%인 7,645건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통계 결과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12,279건 상담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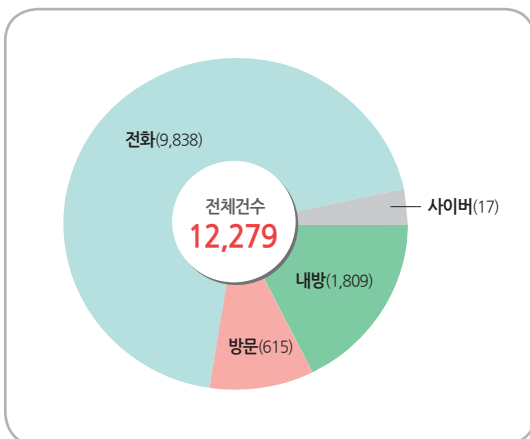
월별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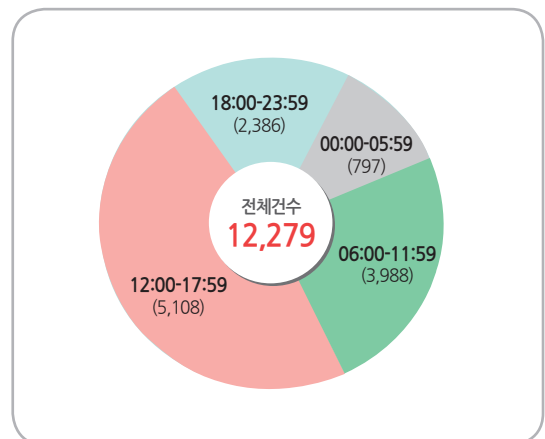
상담의뢰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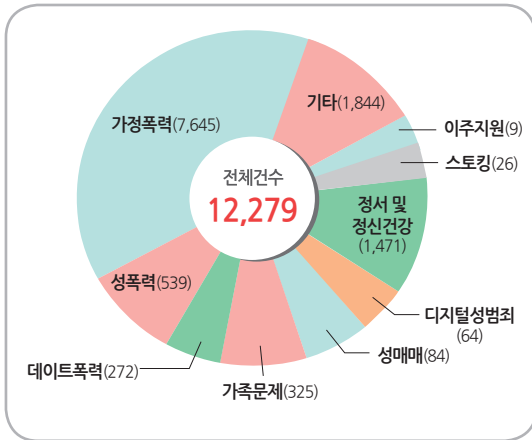
상담방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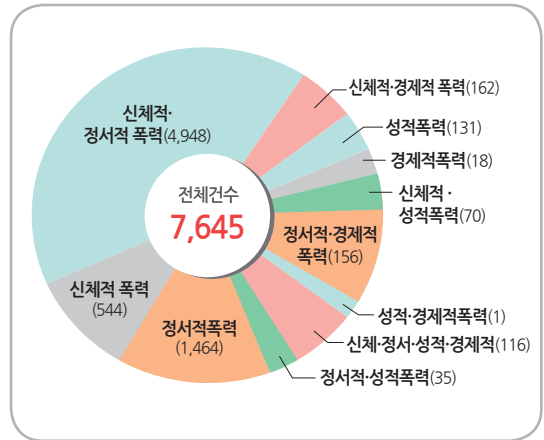
상담시간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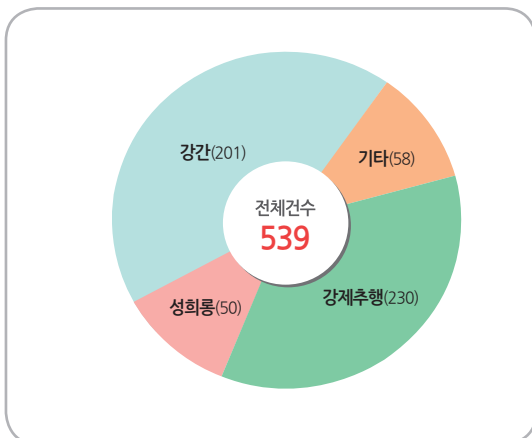
상담내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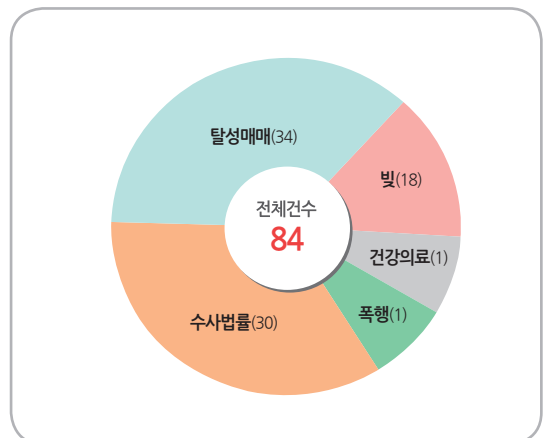
가정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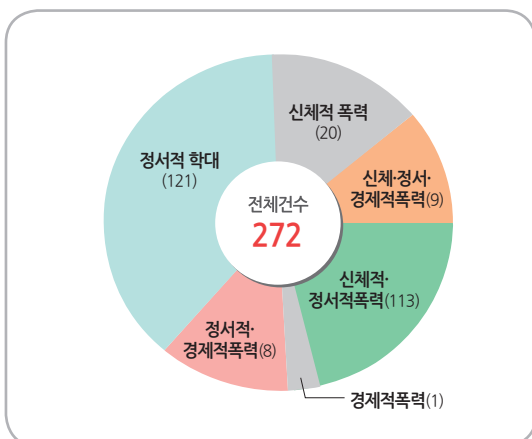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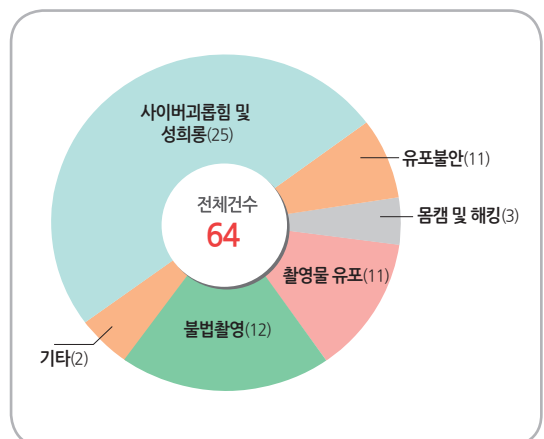
성매매 피해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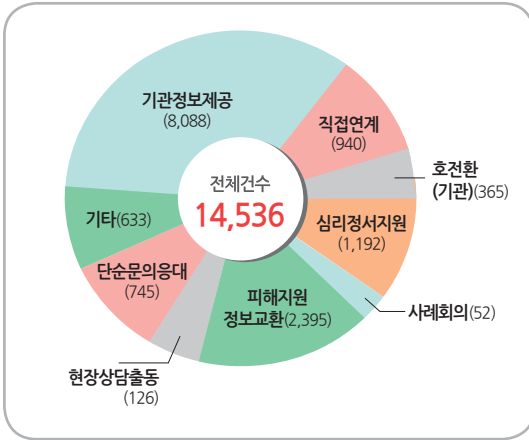
데이트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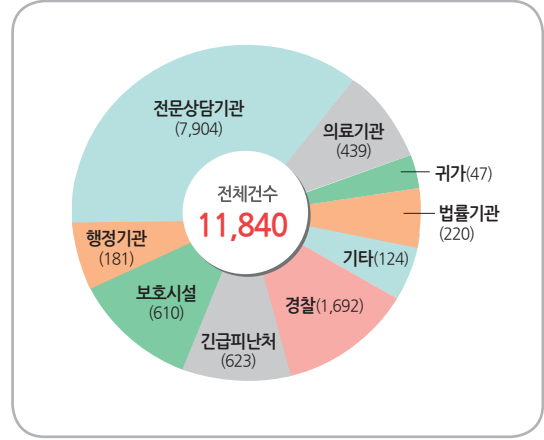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피해유형별 현황



상담 조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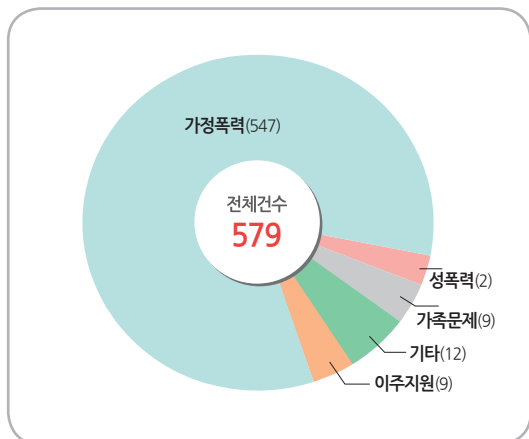
연계기관별 조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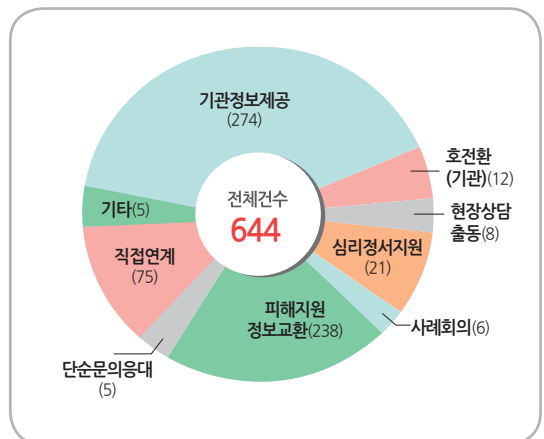
2. 외국인 상담실적

2019년도 외국인 전체상담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도 820건보다 241건(29.3%) 감소하였다. 상담 내용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547건(9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2건(2.0%), 가족문제 9건(1.6%), 이주지원 9건(1.6%), 성폭력 2건(0.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의 차이, 차별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 및 가족 간의 갈등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상담내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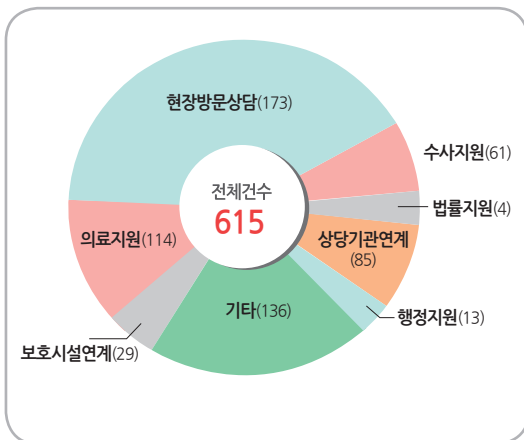
외국인 상담 조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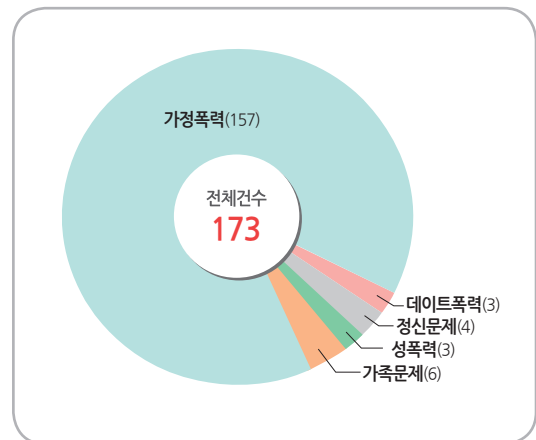
3. 현장출동 실적

2019년도 현장출동 건수는 615건으로 전년도 470건보다 145건(30.9%) 증가하였다. 현장출동 건수는 현장방문상담과 동행지원 건수로 분류되며, 그중 현장방문상담은 173건으로 전년도 62건보다 111건(179%)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찰과 협업하여 시행한 찾아가는 상담실과 화목한 상담실이 활발하게 운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현장방문상담 내용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157건(9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문제 6건(3.5%), 정신문제 4건(2.3%), 성폭력 3건(1.7%), 데이트폭력 3건(1.7%) 순으로 나타났다. 동행지원 건수는 442건으로 의료지원 114건,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연계 114건, 수사지원 61건, 행정지원 13건, 법률지원 4건, 기타 136건이었다.

현장 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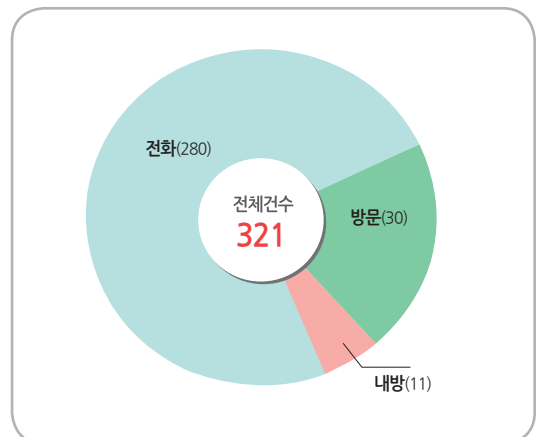


현장방문상담 내용별 현황



4. 가정폭력피해자 모니터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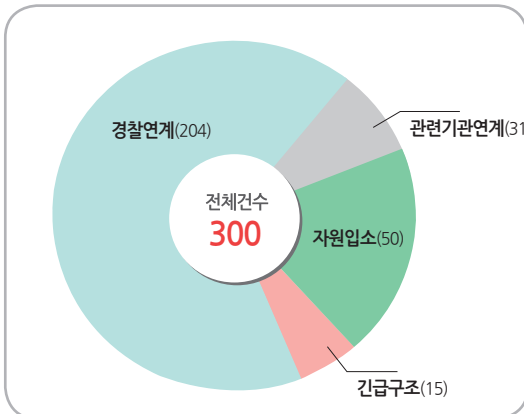
2019년 가정폭력피해자 모니터링 건수는 321건으로 전화상담이 280건(8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상담 30건(9.4%), 내방상담 11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 모니터링은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협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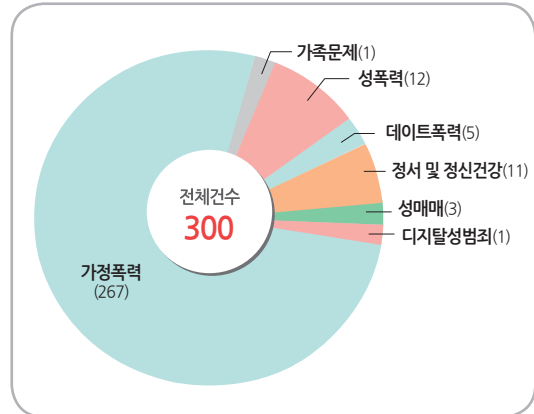
5. 긴급피난처 운영실적

2019년도 긴급피난처 입소 인원은 총 433명(피해자 300명, 동반자 133명)으로 전년도 428명(피해자 310명, 동반자 118명)보다 5명(1.2%) 증가하였으며, 총 보호일수는 전년도 963일보다 83일(8.6%) 증가한 1,046일 이었다. 피해자 300명의 입소 경로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연계가 204건(6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입소 50건(16.7%), 관련기관연계 31건(10.3%), 긴급 구조 15건(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소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267건(89%)로 가장 많았다. 퇴소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귀가 142건(47.3%),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 연계 67건(22.4%), 연고자연계 53건(17.7%), 자립 28건(9.3%), 기타 10건(3.3%) 순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전학 문제와 경제활동 등으로 보호시설 연계보다는 귀가와 연고자연계, 자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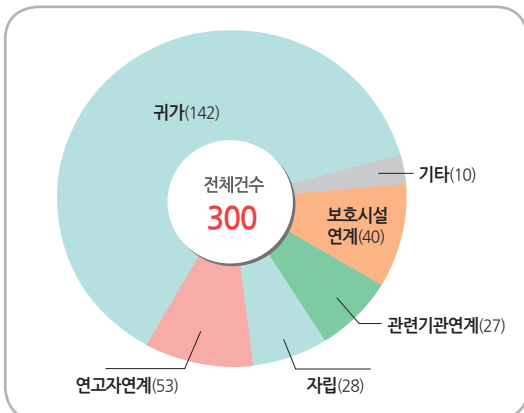
입소 경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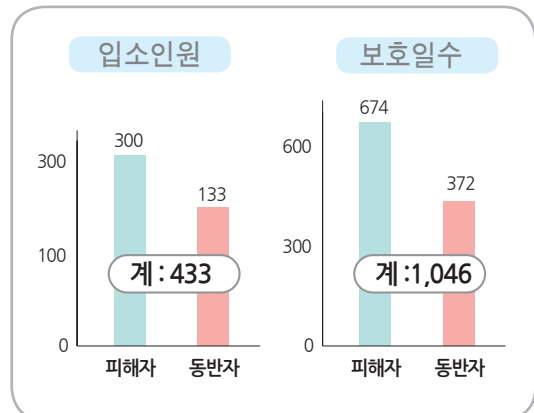
입소 유형별 현황



퇴소 조치현황



입소인원 및 보호일수



II. 교육·홍보사업

01. 교육사업

전문성향상 교육

분 야	교 육 명	실 적	비 고
사례회의	외·내부 사례회의	외부(11회), 내부(26회)	외·내부전문가
내부 직무교육	개인정보 활용 교육	1회/18명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1회/17명	외부전문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1회/18명	외부전문가
	성희롱 예방교육	1회/16명	외부전문가
	시스템 활용교육	2회/16명(회당)	내부전문가
	긴급지원 의무자 교육	1회/18명	내부전문가
	소방 교육	1회/16명	완산소방서
	안전 교육	1회/15명	안전보건공단전북지사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전달교육	10회/6명(회당)	외부교육 훈련·전달
직원연수	직원 친목 도모 및 1366 발전 방향 논의	1회/16명	계룡산 갑사 및 부여낙화암
힐링프로그램	팀워크 향상 및 소진방지프로그램 참여	2회/17명	도자기공방, 영화관람
외부 훈련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19회/31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관련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15회/46명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외
워크숍	1366전국상담원 역량 강화 워크숍	1회	1366전국협의회

외부기관 교육

일 시	교 육 대 상	횟 수	교 육 주 제
2019. 01~12	전북지역 사회복지기관	7회	성폭력 예방교육
2019. 03~11	전북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 전주지역 주민센터	97회	가정폭력사건대응 역량강화 네트워크회의

자원봉사자 교육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횟 수	참 여 인 원
전문자원 봉사자교육	여성긴급전화1366 역할 및 기관소개	7회	전문자원봉사자 6명 교육
	전화상담 및 상담기법		
	유형별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이혼, 성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02. 홍보사업

구 분	세부추진사업	실 적	세 부 내 용
지역사회 홍보사업	사이버 홍보	240개 기관	전북도청 홈페이지 외 239개 기관
	지면 홍보	3개 매체	교차로, 번영로, 숲정이
	매체 모니터링(언론)	일간지 및 방송매체	전북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등
	미용실 홍보	330곳	완산구(132), 덕진구(198)
	버스 홍보	시내버스 25량	성진여객 좌석 커버, 전일여객 차량 외부
	전광판홍보	2개 전광판	전북도청, 전북도민일보
연합 캠페인 (9회)	젠더축제	1회/37개 기관 500명 대상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홍보부스) 홍보물 배부 및 여성폭력 예방 현수막 게시
	전주시양성평등주간캠페인	1회/ 8개 기관 500여 명 대상	전주시청 로비 홍보물 배부 및 여성폭력 예방 현수막 게시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검 및 예방 연합캠페인	1회/ 11개 기관 500여 명 대상	부안 모항 해수욕장 피서지 성범죄 예방근절 관련 게시물 전시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
	가정폭력(보라데이)예방 연합캠페인	1회/14개 기관 500여 명 대상	전주역 가정폭력 예방지침 홍보물 배부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 학대 예방 연합캠페인	1회/ 4개 기관 500여 명	고창모양읍성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예방 및 발생 시 행동 지침 홍보
	데이트폭력연합캠페인	1회/ 10개 기관 300여 명	전북대학교 구 정문 데이트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게시물 전시 데이트폭력 예방 및 근절 길거리 연합 캠페인
	전북 인권문화 컨벤션 2회 참여	22개 기관 10명	11월 7일~ 8일 인권 활동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전시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주간 연합 합동 캠페인	1회 / 11개 기관 500여 명	한옥마을 길거리 캠페인 2팀으로 거리 행진 가정폭력·성폭 력·아동학대·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수막, 배너, 게시물 전시
사업보고서	2018년 사업보고서 발간	500부 제작	덕진경찰서 외 378개 기관, 379부 우편 송부 기관방문 121부 배부
홍보물제작	물티슈, 디지털성범죄 예방 홍보 부채, 미용세트		

3. PARTNER`S DAY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횟 수	참 여 인 원
Partner's Day	기관소개 및 운영실적 보고	1회	상담소시설,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행정기관 등 78명
	감사장 4명 수여(피해자 지원업무에 적극적인 협력기관)		
	공로패 수여(1366전북센터 장기근속자 2명)		
	참석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의 장		

사업활동사진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안전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외부교육)



전문자원봉사자교육



상담사례 슈퍼비전



사건대응역량강화 네트워크회의



직원연수



상담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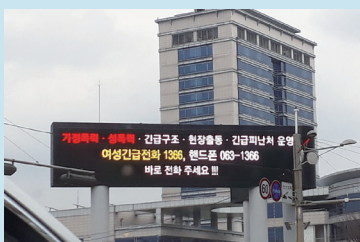
Partner's Day



팀별 소진방지프로그램



1366 버스 홍보



전광판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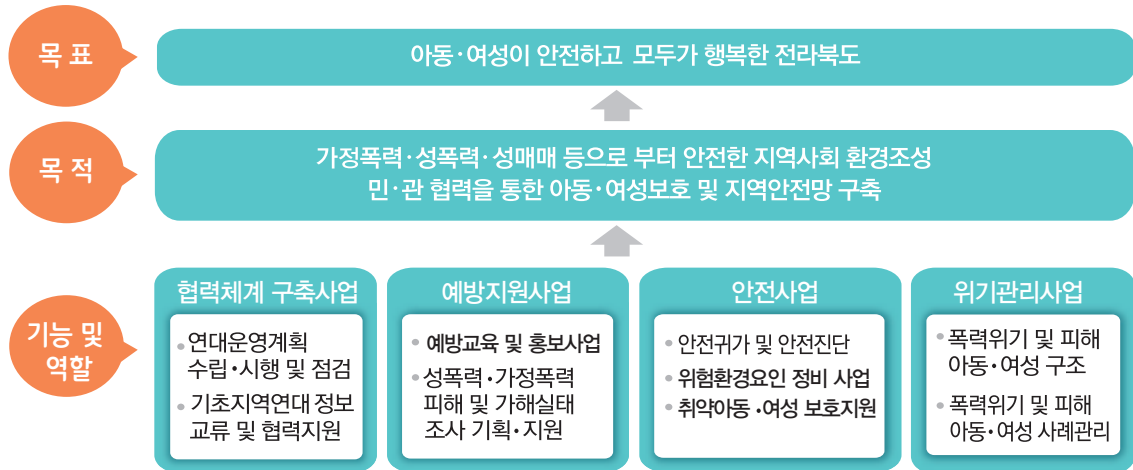
지면 홍보



지역사회 홍보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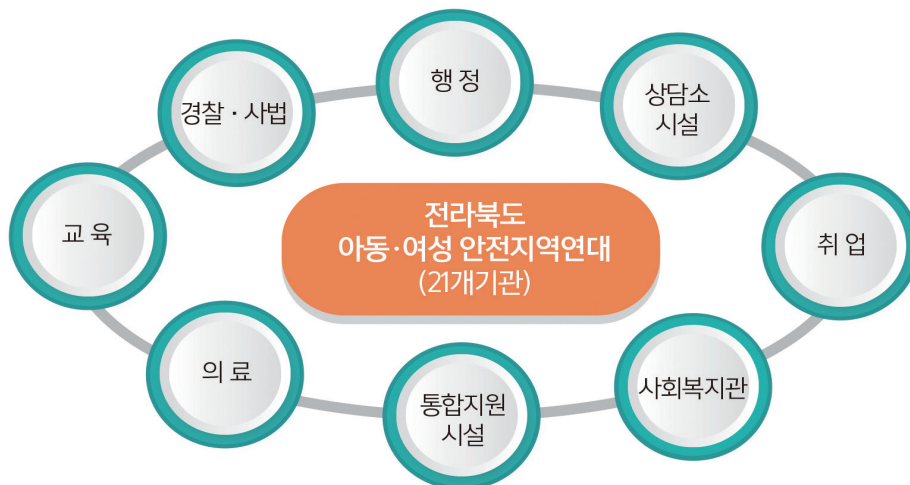
연대 비전체계도



연 혁

2005. 04. 29	'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의회' 구성(22개 기관)
2008. 04. 24	'아동·여성보호전라북도연대' 로 명칭변경(26개 기관), 14개 시군연대구성 운영
2013	'전라북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명칭변경
2015	민·관 공동위원장 운영(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장)
2016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2017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2018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2019	21개 기관 구성

구 성



I 2019년 연대사업 실적

구분	세부사업명	횟수 / 인원	대상 및 내용
협력 구축 사업	운영위원회	1회 / 17명	· 2018년 사업 결과 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 수립, 운영방향 토의 · 3.11 /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 17명
	실무협의회	2회 / 23명	· 1차 : 3.28 / 1366전북센터 / 사업실행방안 논의 / 10명 · 2차 : 12.16 / 전북도청10층 소회의실 / 실적보고 및 평가 / 13명
	폭력방지업무 관계자 워크숍	1회 / 150명	· 5.15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 · 연대위원, 상담소·시설관계자, 공무원, 경찰 등 150명 · 주제 :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지원(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토론 : 행정, 경찰, 상담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남성모임
	경찰과 폭력 관련 기관 간 협업간담회	1회 / 87명	· 7.03 / 천주교전주교구청 4층강당 · 아동·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경찰 등 · 마약의 이해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장민호,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폭력(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업무종사자 소진방지프로그램	1회 / 24명	· 폭력업무 관련 기관장 22명, 연대실무자 2명 · 10.23~24 / 진안고원치유숲 힐링프로그램 참여
예방 지원 사업	아동·여성폭력 예방 연합 캠페인	6회 / 59개 기관 215명	· 전주시양성평등주간 캠페인 · 7.05 / 전주시청 로비 / 8개 기관 30명
			·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검 및 예방캠페인 · 8.02 / 부안모항해수욕장 / 11개 기관 84명 · 피서지 성범죄 예방근절 관련 전시물 게시, 가두캠페인 ·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
			· 추석맞이 보라데이 캠페인 · 9.11 / 전주역사 내·외부 / 14개 기관 31명 · 가정폭력 예방지침 홍보물 제작 500매 배포
			·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학대 예방캠페인 · 10.04/ 고창모양읍성 / 5개 기관 14명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예방, 발생 시 행동지침 홍보
			· 데이트폭력 예방캠페인 · 10.29 / 전북대 신구 정문 주변 지역 / 10개 기관 26명 · 데이트폭력 예방근절 관련 전시물 전시, 가두캠페인
위기 관리 사업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7회	· 성·가정폭력추방주간 캠페인 · 11.26 /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 / 11개 기관 30명 · 한옥마을 거리 행진, 리플릿 및 홍보물 배부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디지털성범죄 관련 현수막, 배너 등 전시
	폭력추방주간 현수막 게시	6곳	비 의무교육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폭력추방주간 현수막 게시	6곳	도청, 빙상경기장, 세이브존, 풍남교, 경기장, 기린삼거리 인근 지역
안전 사업	솔루션·사례관리 회의	2회 / 28명	· 가정폭력피해 위기 가정 지원 · 1차 : 11.05 / 익산여성익전화 / 7개 기관 13명 · 2차 : 12.05 / 익산여성익전화 / 8개 기관 15명
	폭력업무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1회 / 66명	· 10.01 / 전북교육문화센터 3-5강의실 · 가정·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청소년, 노인·아동보호기관, 이주여성 관련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5개 기관 66명 · 분노관리(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장)
안전 사업	아동·여성안전 환경조성 버스 홍보	20량	· 2019.12 ~ 2020.1(2개월) / 전주시내버스 · 시내버스 내부 뒷문 상단에 취약아동·여성 안전도모를 위한 게시물 부착

연대 사업 활동사진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폭력 업무관계자 워크숍



유공자 수상(도지사상)



경찰·가정폭력 관련기관 간담회



종사자 소진방지프로그램



피서지 연합캠페인



보라데이 캠페인



데이트폭력 예방캠페인



성·가정폭력추방주간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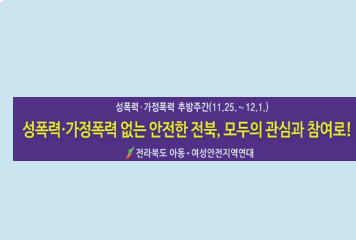
솔루션 사례회의



폭력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폭력 예방 교육



폭력추방주간 현수막 게시



아동·여성안전환경조성 버스홍보

2019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사업목적

-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수행기간

- 2019년 1월 ~ 12월

교육대상

- 일반 국민 또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 전라북도 시군에 조직된 지역사회 지도자, 안전프로그램 참여자, 소상공인, 주민모임 등
 - 비의무대상자(민간기업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학부모,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
 - 농산어촌, 도서벽지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자

교육목적

-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와 ‘폭력’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제공
-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에서 기인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폭력 예방 파수꾼 역할 수행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

사업실적

교육명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계
교육 회수	35회	210회	245회
대상 인원	1,185명	7,568명	8,753명

활동사진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 워크숍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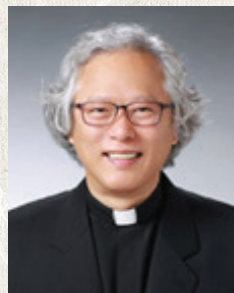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성폭력)



2020년 교육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1월~10월(10개월)
- 신청 : shp.mogef.go.kr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신청)
- 문의 : 063) 227-2044
thesafe13@naver.com

공적 사회와 합리성



김 정 민(라자로)신부

천주교전주교구상당사목센터장

여성긴급전화1366 전복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여러 센터 중 하나다. 현대사회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화된 사회인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시장경제' 원리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다. 1366센터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관이다.

사회주의적 정책을 많이 반영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지기관에 대한 국가 예산이 부족하여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늘 힘들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예산이 한해에만도 몇천억씩 낭비되는 것을 보면 돈이 부족하여 복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처럼 한 나라의 살림도 합리성이 떨어지면 많은 자원이 허투루 낭비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합리성이 떨어지면 생산적인 삶보다는 소모적인 삶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찌면 더 잘살려고 애쓰기보다 소모적인 것들을 줄이는 일만 해도 우리 삶은 훨씬 나아질지도 모른다.

합리성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늘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모순된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유-생각-성찰'이 없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합리성이다. 한 나라가 얼마만큼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느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인들의 합리성에 달려있다. 즉 정치인들이 주권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 합리성은 성취될 것이다. 만약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게 된다면 그만큼 합리성은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사회가 합리성을 더 잘 실현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잘사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가 잘사는 사회를 만든다.

잘살고 싶다면 우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고통에 놓이게 되었다. '정의를 밥 먹여주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제학자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들면서 '정의야말로 기아에서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한국 사회가 이루어낸 성숙한 민주화가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능력을 키워줬다고 오히려 외신들이 평가한다. 부패한 정치인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서 합리성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좁게는 '여성긴급전화1366 전복센터'라는 기관에도 그리고 한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잘사는' 사람이다. 정의로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는 기관이다.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정의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공적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합리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적 사회에서 '합리성'을 잃으면 곧바로 사회 부패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패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내게 된다. 나의 안이함과 나태함으로 누군가를 '사회적 약자'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공적 사회에서 일하는 나의 존재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우리는 열심히 하려는 노력만이 아닌 '합리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신입상담원 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1366전북센터
현장상담원 김 초 연

2018년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한 미투(Me Too)운동이 있었다. 법조계, 예술계, 종교계, 교육계를 막론하고 전 영역에서 성폭행 사실에 대해 용기 내어 입을 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폭력 피해가 있었지만, 제도권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최후의 수단인 폭로를 통하여 피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에 가슴이 먹먹했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여성들을 지지하고 도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갈 즈음,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현장상담원 채용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라는 간절함과 피해 여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통하여, 합격의 꿈을 이루었고 2019년 3월 1일부터 현장상담원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를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욕구를 충족해준 경험이 있기에 ‘현장상담’업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겪는 폭력피해는 너무나 다양했고 위기개입으로 신속한 문제 파악 및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당황스러웠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고 기관연계와 정보제공에 급급한 내 모습을 보며 속상함이 밀려왔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상담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외부교육 참여 및 내부사례회의를 통한 슈퍼비전을 통해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었으며, 보완할 점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상담자는 꾸준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나의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함께해 주시는 1366선생님들의 조언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고, 점점 동료애가 깊어가는 것을 느꼈다.

현장방문상담은 클라이언트의 얼굴을 마주 보며 전화로는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오롯이 풀어내며 감정을 나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울고, 웃는 시간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며 편안해하신 분들도 있고, 위기 개입으로 가해자와 서둘러 분리하거나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다. 현장상담원은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분들의 심신의 회복과 안정을 돕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지원범위**
 -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적 치료, 임신부 및 태아 검사, 신생아 의료지원 등
- • **지원 원칙**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사례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음.
단,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불가
- • **의료비 청구**
 - ① 가정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비 명세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 · 군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
 -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 · 군에 의료비(본인부담액) 보전 청구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의 사건(고소 · 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어떻게 되나요?

- •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 **지원범위**
 -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 · 가사, 형사 사건 등
 - 변호사 수입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 • **입증자료** (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진단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지원, 어떻게 되나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 • **입주 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 **입주 조건**
 - 임대 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 방식 :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관리비는 영구임대아파트 수준)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자)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입소 후 자립하려는 퇴소자
- **지원 금액**
 - 1인당 500만원(심사 후 결정)
- **자립지원금
사용용도**
 - 학자금,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월세, 보증금), 가전제품 및 가구(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및 변경으로 2차피해에서 벗어나세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의 제한

- **신청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한 사실이 있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 등)한 경우
- **신청 방법**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신청서 및 증거서류 제출
-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서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이 증거서류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의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 보호 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신청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유효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청 자료**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 입증자료 : 피해를 소명하는 자료(사건사고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녹취록, 진술서 등)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변경 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

가정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전학 등),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의 필요가 있을 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취학 지원
- **근 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신청 자료**
 -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신청 방법**
 -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제출

2019년 후원금 수입 및 지출결과 보고

후원금 및 물품 후원자

- **후원금** : 권선옥, 서정란, 영란리더스포럼, 박지혜, 함미화.
- **후원품** : 전라북도 공동모금회, 천주교 전주교구, 완산구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지원단,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후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수입내역	수입금액	지출내역	지출금액
전년이월금	7,360,095	운영비	33,860
후원금	750,000	시설비(자산취득비)	17,000
이자수입	10,647	사업비(긴급피난처 운영)	374,990
잡수입	64,280	사업비(네트워크구축사업)	1,909,500
		차년 이월금	5,849,672
계	8,185,022	계	8,185,022

※ 후원금과 후원 물품은 위기에 처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와 회복을 위해 사용되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전북은행	농협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1013-01-2283398	301-0236-6615-01

센터 이용안내

- **상담영역**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족문제 등
-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가능
- **상담방법**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 063-1366)
 면접상담 - 전화예약 후 내방
 방문상담 - 전화상담 후 필요 시 현장방문상담
 사이버상담 - www.baro1366.or.kr

여성긴급전화

1366

모든 여성폭력 피해상담과
초기 지원 안내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모든 여성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http://www.baro1366.or.kr>

상담전화 1366 핸드폰 063-1366

사무실 063-227-6810, 227-4550

팩스 063-224-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2019년 사업보고서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